

쿠팡 노동자 유족 광주서 기자회견

칠곡 물류센터 심야 근무 뒤 숨진 고 장덕준씨 유족 참석 “야간노동 최소화 등 재발방지책 수립을” 전국 순회 투쟁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서비스연맹 광주전라본부는 쿠팡 물류센터 야간 근무 뒤 과로로 숨진 고 장덕준씨 유족과 함께 25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재발 방지대책 마련 촉구 전국 순회투쟁 기자회견'을 열었다.

쿠팡 경북 칠곡 물류센터에서 1년 여 넘게 야간 근무자로 일하다 퇴근 뒤 숨진 장덕준씨 유족이 전국 순회 투쟁의 일환으로 광주를 찾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서

비스연맹 광주전라본부는 25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 순회투쟁 광주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장씨 유가족도 함께 했다. 단체는 “쿠팡은 근로복지공단의 과

로사 판정 전까지 산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산재 판정 이후의 태도는 유족을 더욱 분노케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산재 청문회 직전에는 유족과 접촉을 시도하더니 청문회가 끝나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진심 어린 사과도,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족이 슬퍼할 시간에도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하고, 사업 확장을 발표하며 축제를 벌였다”며 “같은 시간을 유족들은 후회와 원망 속에 보냈다. 밤에 일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줄 알았다면 말했어야 한다”는 후회가 밤마다 계속됐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단체는 “지금도 그 곳에서 일하는 ‘덕준이 친구들은 지켜야 한다’는 심정으로 멈추지 않고 싸우고 있다”며 “쿠팡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정규직 중심 고용 전환 ▲야간 노동 최소화 ▲야간 노동 시, 충분한 휴식 시간·공간 보장 ▲냉·난방 시설 확충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정부에 대해선 “쿠팡이 만들어 내는 질 낮은 일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다. 특별 근로 감독을 하고, 법을 우회하는 쿠팡의 사업 확장도 철저히 규제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씨는 지난해 10월12일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자택에서 숨졌다. 그는 1년 4개월여간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를 했다.

유족 측의 산재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9일 장씨의 사망 원인을 과로사로 판정, 산재를 인정했다.

단체와 장씨 유족은 이날 13일부터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이후엔 전주·충남·충북·경기·인천 등지를 거쳐 다음 달 17일 서울 쿠팡 본사 앞에서 함의 기자회견을 연다.

김민정기자

담양소방, 주택용 소방시설 사후관리 추진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기존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설치 구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기존에 보급된 소화기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소화 분말가루가 굳거나 일 상에서 발생하는 증기·습기·먼지로 인해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소화기·화재경보기가 정상 작동하여 주택화 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저감할수 있도록 종전 보급구구를 대상으로 직접방문 하여 내용연수 초과 또는 부적합 상태의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교체를 진행 하였다.

박상래 소방서장은 “가정에서는 소화기 관리에 소홀하기 쉽고 오작동으로 화재경보기를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며 “꾸준히 사후관리를 추진한다면 주택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완도해경, 텃밭에 몰래 기른 양귀비 밀경작 주민 적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24일 전남 장흥군 회진면 일원에서 아편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상비약’ 대응 목적으로 텃밭에 남몰래 밀경작한 주민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 회진파출소는 24일 ‘21년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에 맞춰 어촌마을 비닐하우스·텃밭·정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여 불법 재배한 A씨(34년생)와 B씨(58년생) 적발하여 양귀비 총 41주를 압수하였다.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번 적발된 주민들 또한 약성이 좋다는 이유로 텃밭에 남몰래 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대검찰청 예규에 의해 양귀비 50주 미만 재배는 형사입건 하지 않고 압수와 계도를 하고 있다.

완도=이민혁기자

여수 섬마을서 양귀비 몰래 재배한 주민 14명 들통

여수해경, 텃밭 등 불법재배 양귀비 319주 압수·폐기

인적이 드문 섬마을에서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를 몰래 기르던 주민 14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의 도서 지역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통해 섬마을 텃밭에 양귀비를 밀경작한 주민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어촌·도서 지역 등에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재배, 유통 및 투약 사범 원천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경은 양귀비를 몰래 기르던 섬 주민 14명을 적발하고 양귀

비 총 319주를 압수했다.

해경은 이 가운데 25일 여수시 남면 섬마을 자택에서 단속을 피하고자 양귀비 93주를 타 작물과 함께 밀경작한 A(82)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귀비와 대마 등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허가 없이 재배할 수 없다. 50주 미만의 양귀비 재배는 형사 입건 없이 압수해 폐기하는 등 계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수해경은 섬마을 주민들이 민간 요법에 약용식물로 알려진 양귀비를 일부 주민들이 소량으로 몰래 기르거



나 씨앗이 날려 자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양귀비 불

법 재배 등을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여수=오상호기자

‘이 시국에’ 광주서 만취 뺑소니 공무원 검거

방역 권고 지침을 어기고 만취 상태에서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6일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남 한 지자체 소속 행정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께 광주

광산구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후속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수색을 벌여 A씨를 붙잡았

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측정됐다.

A씨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적 모임 자체 권고 지침’을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기동취재본부

영암소방,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 개최

영암소방서(서장 임동현)는 영암119안전센터에서 소방·군청·경찰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2021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소방용수시설의 원활한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화재 및 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때 소방용수를 적극 활용을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회의 내용은 △소방용수시설 보수·정비에 필요한 사항△소방용수시설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소방용수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설치 방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암=조대호기자

광주 동부소방, 산악사고 대비 119구조대원 훈련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최정식)는 26일 오전 무등산국립공원 충민사 계곡 일원에서 119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산악 안전사고에 대비한 인명구조훈련 및 대원 역량강화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산림 힐링 및 등산 등 여가생활을 즐기는 시민의 증가와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산악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산악구조훈련을 실시하여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안전사고 방지교육 및 준비운동 ▲산악구조장비 제원 등 이론교육 ▲산악사고의 유형별 표준작전 절차에 따른 훈련과 응급처치 및 이송 훈련 등 상황별 훈련으로 진행됐다. 또한, 산악사고와 산불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병행해 실시했다.

최정식 동부소방서장은 “산행 전 준비운동을 실시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계획을 세워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